



개혁, 북한, 통일에서 시민, 언론, 자유로 민주주의 키워드 변화

글 **현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관리실
hjc0123@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5년 9월 15일 '세계 민주주의 날'을 맞이하여 민주주의 의식 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버즈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올해 세계 민주주의 날의 주제가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임을 고려하여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를 '민주주의', '민주화'와 '시민사회'로 설정하였다. 데이터 추출은 카인즈(KINDS: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사 검색 사이트)와 포털, 블로그, 카페, 트위터 등 SNS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시민사회' 키워드: 시민사회 '역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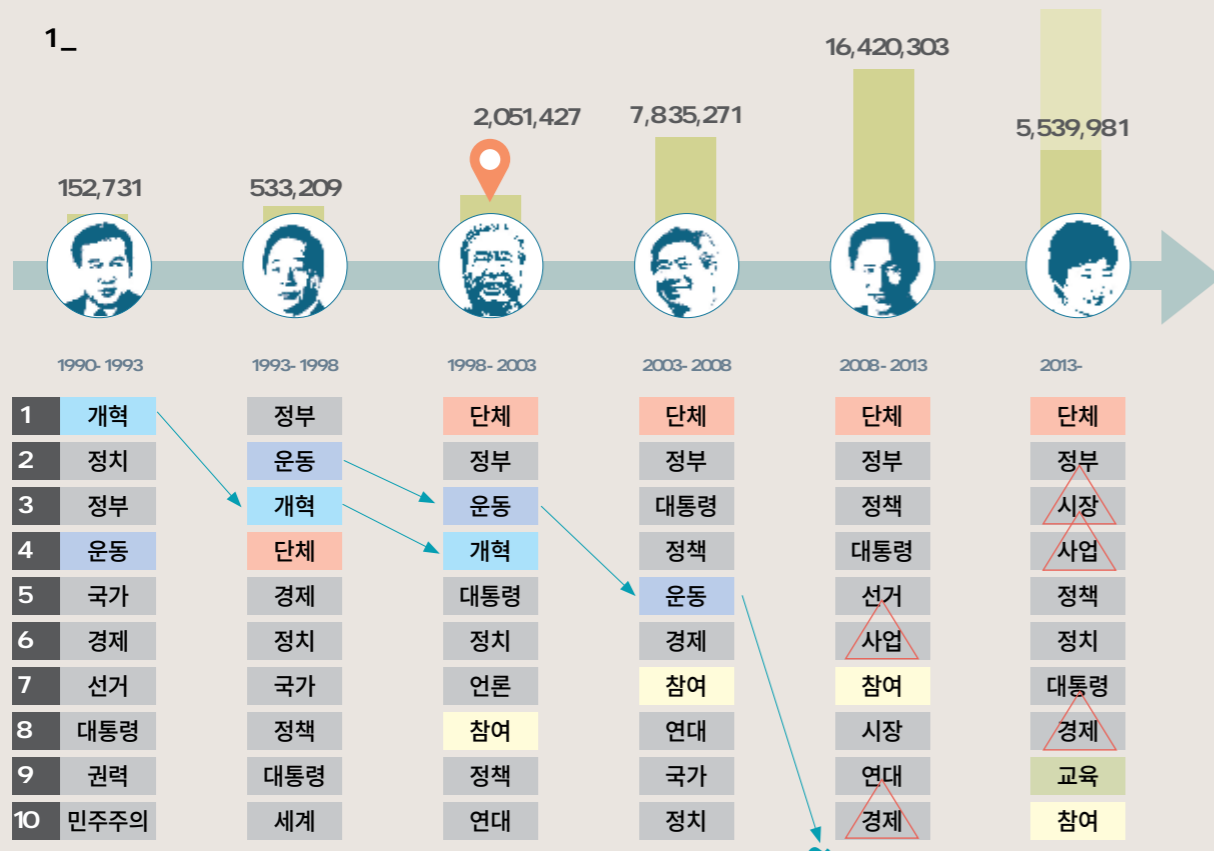
카인즈를 대상으로 '시민사회' 키워드를 분석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시민사회' 연관 키워드가 2배 이상 성장했다.

시기별로 보면 1990~2003년에는 '개혁', '정부',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단체', '참여', '교육'이 상위권에 등장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는 '사업', '경제'도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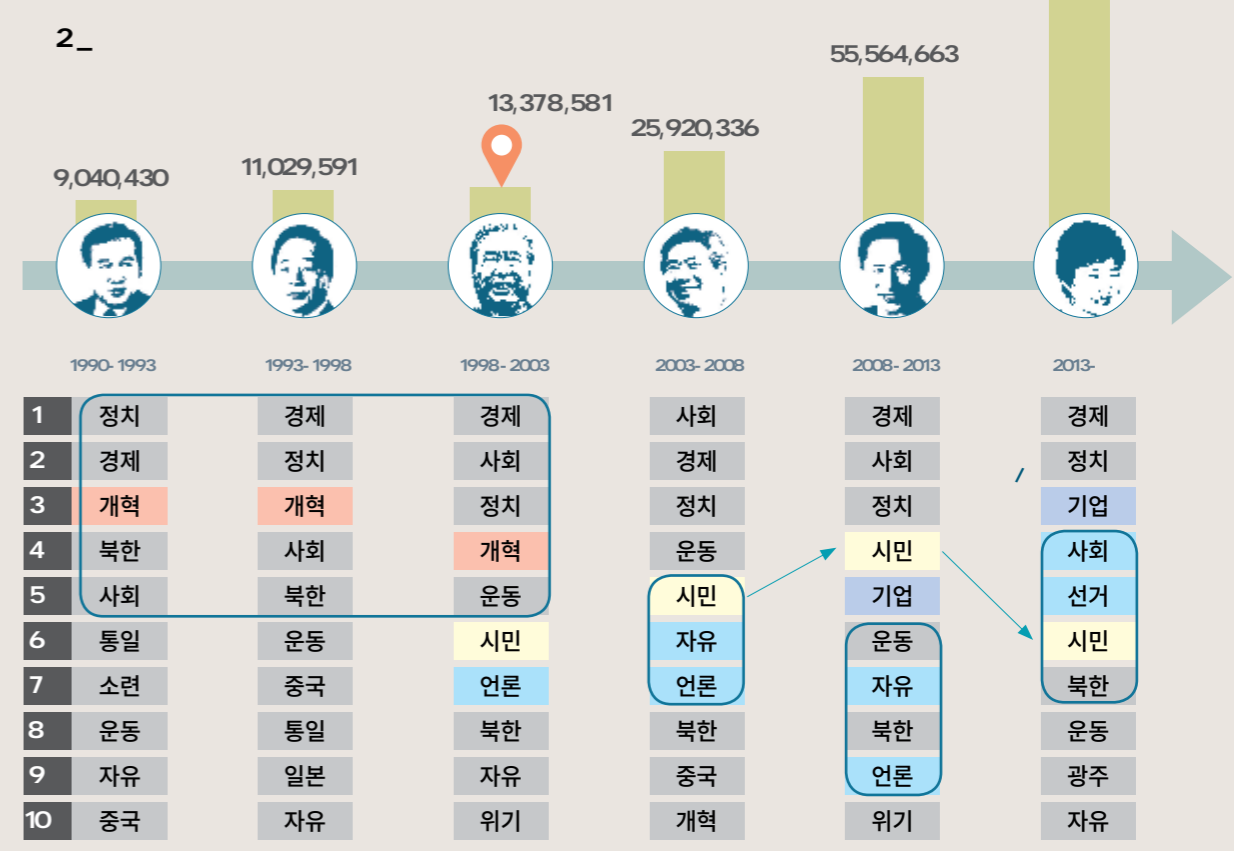
2 '민주주의' 키워드: '국가적 관점'보다는 '사회/개인적 관점' 증가

대통령 집권 시기별 '민주주의' 연관 키워드 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인터넷 발달, '매체 수'의 증가, 사회 전 분야에 대한 민주주의 관심 증가로 해석된다.

1990년~2003년에는 '개혁', '북한', '통일' 등 '국가적 관점'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한 반면, SNS가 등장하고 인터넷 소통이 활발해진 2003년부터는 '시민', '언론', '자유'와 같은 '사회/개인적 관점'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키워드: 시민사회 / 포스팅기간: 1990. 1. 1~2015.8.31 / 분석대상: 카인즈의 기사 댓글 102,849건, 키워드 30,699,010건 / 분석방법: 키워드 분석(문장에 나타나는 단어를 분해하여 분석하는 기법)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화 / 포스팅기간: 1990. 1. 1~2015.8.31 / 분석대상: 카인즈의 기사 댓글 394,882건, 키워드 214,878,409건 / 분석방법: 키워드 분석

3 대통령 시기별 주요 키워드 분석

각 정부 시기에 민주주의와 동반하여 등장하는 키워드 분포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국가적/이념적 키워드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민주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분석방법: 키워드 분석(9,040,430건)



국가적/이념적 키워드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개혁'과 선거법 관련 '정치개혁'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분석방법: 키워드 분석(11,029,59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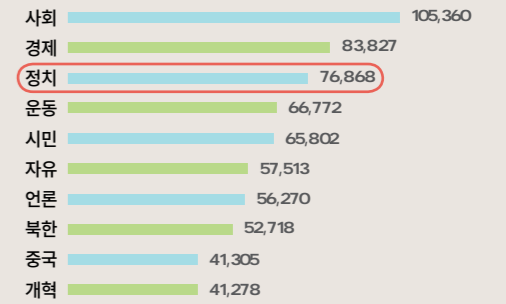
시민, 언론과 같은 새로운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개혁과 관련하여 '사법개혁'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분석방법: 키워드 분석(13,378,58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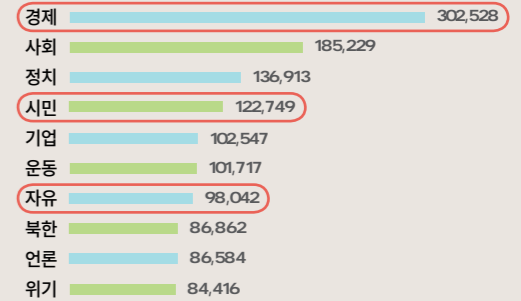
시민, 자유, 언론, 참여와 같은 사회적/개인적 관점의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등장하고 있다. '언론' 키워드 세부분석 결과 '언론침해' '언론 관련 갈등'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분석방법: 키워드 분석(25,920,33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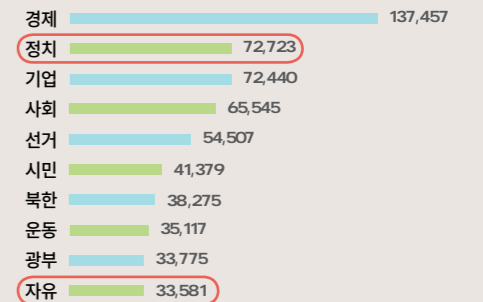
'기업'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상위권에 등장하기 시작하며, 세부분석 결과 친기업 정책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부정적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분석방법: 키워드 분석(25,920,336건)



'경제민주화'가 큰 화두로 떠올라 '기업' 키워드가 상위권에 등장하였다. '부정선거', '국정원 사건' 등으로 인해 '선거', '대선' 같은 키워드가 민주주의와 동반하여 많이 언급되었다.



* 분석방법: 키워드 분석(55,564,663건)

4 '좋은 민주주의'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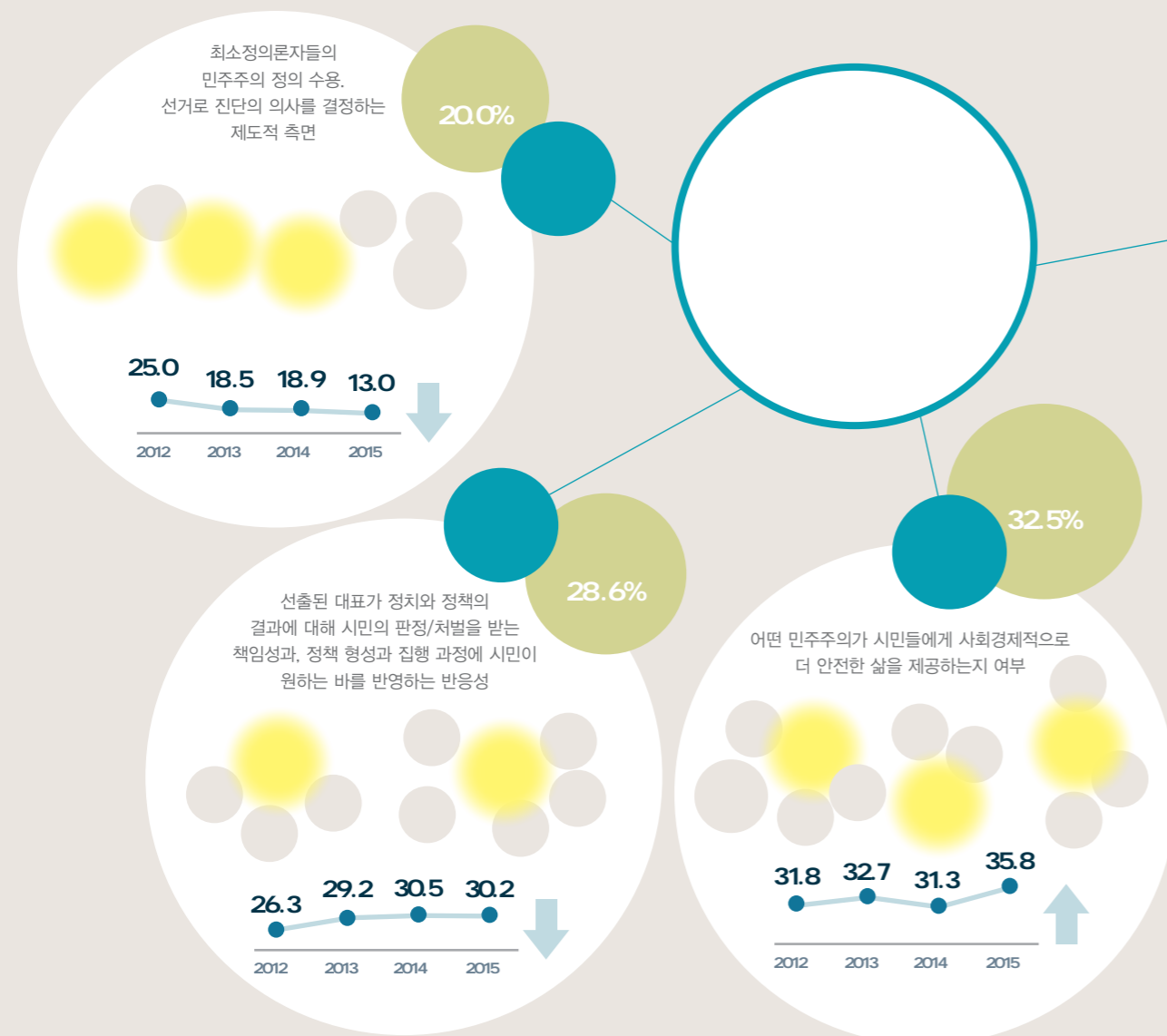
절차 20.0%, 효능 28.6%, 성과 32.5%, 통합(소통) 18.9%

민주주의의 외형적 확산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좋은 민주주의' 구성 요소별 인식 수준을 진단하였다. '좋은 민주주의' 개념과 범주, 핵심 구성요소는 마인섭·이희욱의 논문인 「아시아에서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 개념과 평가」(『비교민주주의 연구 제10집 1호』, 2014)를 준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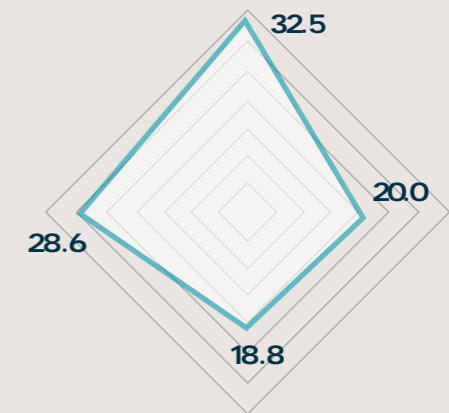
Semantic 분석 결과 민주주의 '절차' 관련 키워드 발생량 20.0%, 효능 28.6%, 성과 32.5%, 통합(소통) 18.9%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과'와 '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표 5>에서 보듯이 '성과' '통합' '효능'에 대한 관심도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절차'에 대한 관심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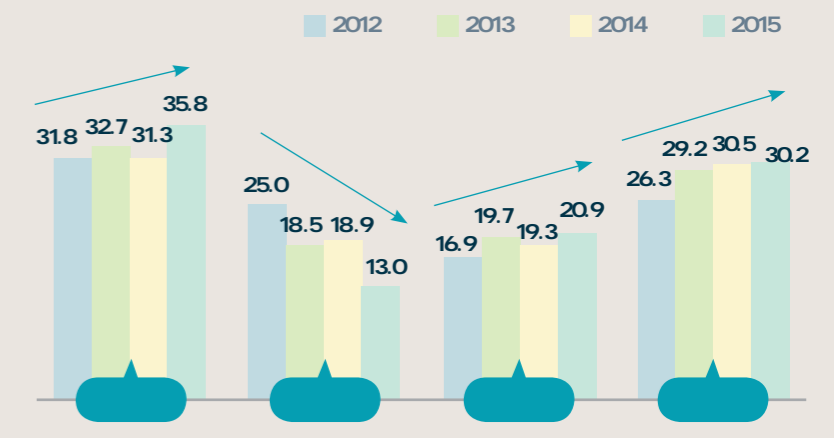
3_



4_



5_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화
포스팅기간: 2012. 1. 1~2015.6.30
분석대상: 온라인의 기사 댓글 5,111,030건, 키워드 784,261,006건
분석방법: 키워드 분석 & Semantic 분석
분석 사이트: 주요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및 지식인, 주요 토론/커뮤니티, 트위터, 미디어 뉴스 등

* Base = 민주주의 연관 키워드 1000순위(290,093,49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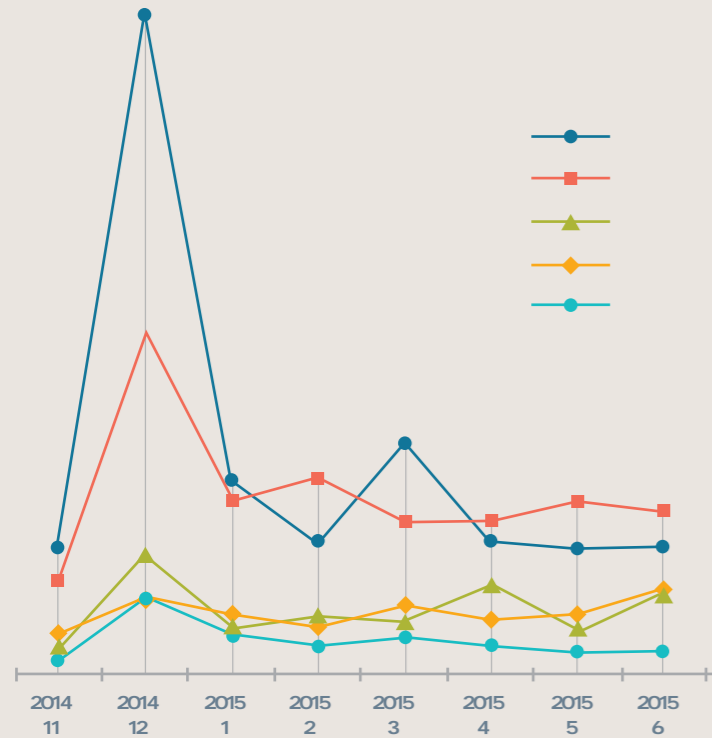
**5 '일베' 사이트 분석: 좌익성향 비하 67.6% 특정지역 비하 17.8%
전현직 대통령 비하 10.5%**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일베' 사이트를 분석해 보았다.
추출된 키워드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비속어, 은어를 발췌한 결과 49개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아래 표는 49개 중 상위 20개).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좌익성향' 비하 관련 키워드가 67.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특정지역 비하'(17.8%), '전·현직 대통령 비하'(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언론과 네티즌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좋은 민주주의' 핵심 구성요소들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네티즌이나 시민들의 민주주의, 민주화에 대한 왜곡되거나 잘못된 인식도 교육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본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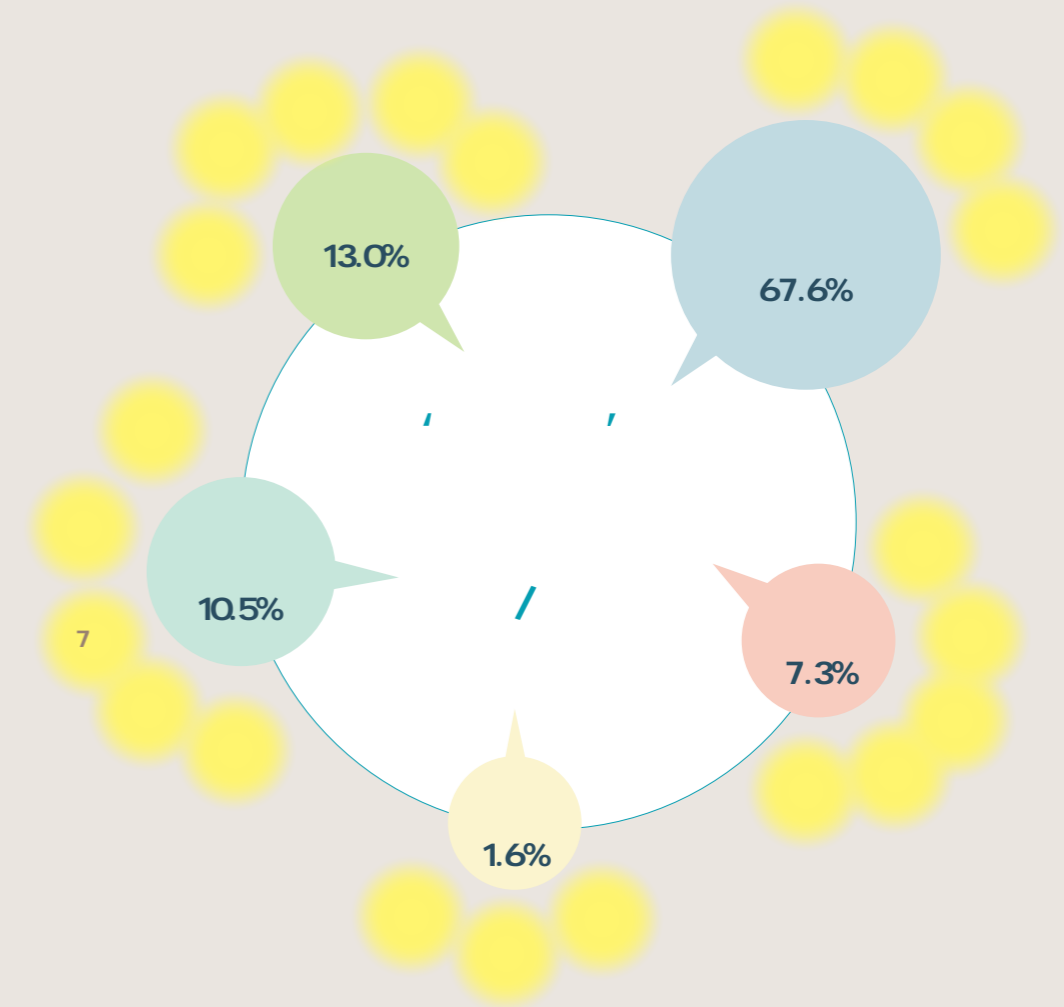
6_ 5



7_

1	중북	4172	29.3
2	빨갱이	3511	24.7
3	좌증	1245	8.7
4	홍어	1137	8.0
5	북괴	672	4.7
6	좌빨	661	4.6
7	산업화	621	4.4
8	손상	332	2.3
9	광수	213	1.5
10	노짱	209	1.0
11	괴뢰	148	0.8
12	씹선비	114	0.8
13	7시	112	0.8
14	네다홍	107	0.7
15	^오^	99	0.6
16	땅크	90	0.6
17	갓카	87	0.6
18	원조가카	86	0.6
19	수괴	75	0.5
20	수꿀	67	0.5

8_ ' /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화 / 포스팅기간: 2014. 1. 1~2015.6.30 /
분석대상: 일베사이트의 기사 댓글 125,540건, 키워드 2,019,646건 / 분석방법: 키워드 분석